

일본 SF장르에 나타난 냉전 (무)의식과 분단의 상상력

: 고마쓰 사쿄(小松左京)의 『일본 아파치족(日本アパッチ族)』을 중심으로*

김지영 _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HK교수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오사카포병공창’, ‘아파치족’, ‘철’을 둘러싼 역사적 지층
- III. 고마쓰 사쿄의 『일본 아파치족』에 나타난 SF적 상상력과 냉전 (무)의식
 1. ‘폐허’의 대체미래로 상상된 또 하나의 ‘전후’
 2. SF적 상상력으로 쓰여진 ‘전후’의 우화와 냉전 (무)의식
- IV. 나가며: ‘전후’의 실패와 ‘냉전’적 타자의 회귀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 최초의 본격 SF 장편소설로 일컬어지는 고마쓰 사쿄(小松左京)의 『일본 아파치족(日本アパッチ族)』(1964)을 중심으로 1950년대~60년대 SF적 상상력과 냉전 (무)의식의 교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마쓰 사쿄의 『일본 아파치족』은 1950년대 후반에 오사카에 출현했던 ‘아파치족’에서 영감을 받아 SF적 상상력을 구축한 작품으로, 일본의 내전과 분단이 그려진다. 여기서 ‘아파치족’이란 폐허가 된 오사카포병공창 터에 잠입해 들어가 매몰된 고철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재일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을 지칭하던 말로, 이처럼 1950년대 후반에 재일조선인들이 고철을 팔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4266).

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전쟁의 특수이 있었다. 즉 ‘오사카포병공창’-‘아파치족’-‘철’이라는 기호군에는 제국에서 패전, 점령, 냉전, 고도성장기에 이르는 역사적 지층이 다층적으로 얽혀있다. 고마쓰는 이 소설에서 ‘폐허’의 대체미대로 상상된 또 하나의 ‘전후’를 그림으로써 현실의 일본사회를 풍자하는데, ‘아파치족’의 묘사에는 냉전적 수사가 다수 동원된다. 하지만 냉전 시대에 미국과 한국 등을 지배했던 편협증적 불안감과는 달리 이 작품은 시종일관 유머러스한 기조를 유지하는데, 이는 일본이 냉전이 야기한 날 것 그대로의 폭력으로부터 거리감이 확보된 안전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고마쓰 사료, 아파치족, SF, 한국전쟁, 냉전

1. 들어가며

일본의 문화연구자 마루카와 데쓰시(丸川哲史)는 2005년에 출간된 저서 『냉전문화론: 잊혀진 모호한 전쟁의 현재성(冷戦文化論-忘れられた曖昧な戦争の現在性)』에서 전후일본의 ‘냉전의 망각=무의식’을 지적하면서, “일본 인들은 냉전이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 실감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라고 자문한 바 있다.¹⁾ 마루카와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합작으로 냉전체제를 지탱했던 ‘냉전의 주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전과 마주하지 않은 채로 ‘전후’라는 시공간을 살아왔는데, 마루카와가 던진 물음이 동시대 일본인들에게 여전히 ‘새로운’ 화두였다는 사실은 1990년대 이후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도 냉전이 여전히 일본인들의 의식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국과 대조를 이루는 일본의 이러한 냉전 (무)감각은 무엇보다 한국전

1) 丸川哲史, 『冷戦文化論-忘れられた曖昧な戦争の現在性』, 双風舎, 2005, pp.7~8.

쟁이라는 지상전을 직접 치러낸 한국과는 달리 일본이 동아시아의 열전(熱戰)의 전선에서 가까스로 후방에 비껴있었다는 역사적 경험과 관계된다. 여기서 ‘가까스로’란 단순한 물리적 거리만이 아닌 역사적 가능성의 차원까지를 포함하는데, 많은 논자가 지적하듯이 한반도에서 ‘국제적 내전’이 치러진 것은 여러 우연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찾아온 냉전질서에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 패전국 일본이 분단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²⁾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미국의 후방기지 역할을 부여받았고, 전쟁특수를 발판으로 전후 부흥의 길로 들어섰다. 일본은 ‘기지국가’로서 이 전쟁의 폭력에 깊이 관여했지만,³⁾ 패전 이후 ‘평화국가’를 표방해온 일본의 ‘전후’ 서사에서 한국전쟁은 경제적 특수로만 언급될 뿐, 중요한 역사적 기억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렇다면 문학적 재현의 영역에서 한국전쟁은 어떻게 나타날까? 일본의 영화와 문학에 나타난 냉전의 흔적을 추적한 마루카와가 “한국전쟁을 다룬 것은 재일조선·한국인의 것을 제외하면 너무나 수가 적”고, 그조차도 “전후일본의 풍속의 일부”로서 그리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풍속으로 처리되는 묘사 역시 근래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그 경향을 언급한 바 있듯이,⁴⁾ 일본문학에서 한국전쟁의 표상은 ‘부재’로 평가될 정도로 그 수가 적고, 한국전쟁을 중심적인 소재로 다루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종래의 일본문학 연구에서 한국전쟁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냉전문화 연구의 진전과 더불어 일본 문학/문화 연구에서 1950년대가 재조명되면서, 한국전쟁 하 일본에서 펼쳐졌던 사회·

2) 니시무라 히데키(저), 심아정·김정은·김수지·강민지(역), 『일본에서 싸운 한국전쟁의 날들: 재일조선인과 스타타사건』, 논형, 2020, pp.5~7.

3)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4) 丸川哲史(2005), p.10.

문화사적 경관을 다층적으로 조명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다. 재일조선인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학적 재현의 고찰은 일본인 작가들로 확대되었고,⁵⁾ 한국전쟁 시기에 전개된 문화서클 운동이 지녔던 반전저항운동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작가들의 연대를 조명한 연구 성과도 출간되었다.⁶⁾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2년에는 한국전쟁을 테마로 한 일본문학작품 앤솔로지가 출판되기도 했다.⁷⁾ 이처럼 한국전쟁의 재현에 관한 소개와 연구는 일정 수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다루어진 작품의 리스트는 대부분 대중적으로 많이 읽힌 작품에서는 비껴 있으며, 리얼리즘 소설의 계보에 편중되어 왔다. 하지만 냉전이 전후 일본에서 ‘망각=무의식화’된 것이라면, 리얼리즘적 재현 바깥으로 시야를 넓혀 냉전이 남긴 기억

-
- 5)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고바야시 코우키치, 「전쟁의 기억과 마주 보는 문학: 일본과 재일동포의 문학을 아우르며」, 『한국학 논집』 Vol.41,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pp.87~109; 나카네 다카유키, 「훗타 요시에 『광장의 고독』의 시선: 한국전쟁과 동시대의 일본문학」, 『한국어와 문화』 Vol.7,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 2010, pp.187~210; 서동주, 「전후의 기원과 내부화하는 ‘냉전’: 훗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을 중심으로」, 『일본사상』 28, 2015, pp.51~73; 남상욱, 「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 한국전쟁과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비교한국학』 23(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pp.11~37; 소명선,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와 ‘한국전쟁’: 1950년대의 일본열도가 본 ‘한국전쟁」, 『일본근대학연구』 61, 한국일본근대학회, 2018, pp.199~223; 黒川伊織, 「<まいおちるピラ>と<腐るピラ>—朝鮮戦争勃発直後の反戦平和運動と峠三吉・井上光晴」, 『社会文学』 38, 『社会文学』編集委員会, 2013, pp.104~115; 張允磨, 「朝鮮戦争をめぐる日本とアメリカ占領軍—張赫宙『嗚呼朝鮮論』」, 『社会文学』(32), 『社会文学』編集委員会, 2010, pp.157~171; 松居りゅうじ, 「朝鮮戦争と抵抗雑誌『石ツブテ』を語る」, 『社会文学』 23, 2006, 『社会文学』編集委員会, pp.156~166; 川口隆行, 「山代巴『或るとむらい論—朝鮮戦争と原爆表現の生成』」, 『社会文学』(43), 『社会文学』編集委員会, 2016, pp.119~130.
- 6) 宇野田尚哉・川口隆行・坂口博・鳥羽耕史・中谷いずみ・道場親信(編), 『「サークル」の時代を読む—戦後文化運動研究への招待』, 影書房, 2016; 道場親信, 『下丸子文化集団とその時代—九五〇年代サークル文化運動の光芒』, みすず書房, 2016.
- 7) 金石範 외, 『コレクション 戦争と文学1 朝鮮戦争』, 集英社, 2012. 책의 표지는 ‘경제선에 의해 단절된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은 ‘단(斷)’의 이미지로 디자인되었다.

의 흔적을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여기서 시야를 SF장르로 돌려보면, 한국전쟁과 냉전이 야기한 지정학적 상상력과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일본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동경(東經) 139도선의 동쪽에 건국된다는 설정의 야하기 도시히코(矢作俊彦)의 『아·자·팡(あ·じゃ·ぱん)』(1997)이나, 2차 세계 대전 종결 후 연합국의 일본 분할통치계획에 따라 분단된 일본을 그린 무라카미 류(村上龍)의 『오분 후의 세계(五分後の世界)』(1999), 북한의 무장부대가 일본에 침입해 후쿠오카 일대를 점령하자 본토침입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이 지역을 봉쇄한다는 무라카미 류의 『반도에서 나가라(半島を出よ)』(2005) 등에는 ‘분단’에 대한 상상이 한국의 그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 역시 『구름의 저편, 약속된 장소(雲のむこう、約束の場所)』(2004)에서 패전 후 홋카이도가 소련의 점령 아래 놓인 후 공산주의 국가로서 본토로부터 분단되는 상황을 상상했다.

이들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SF의 하위 장르 가운데 하나인 대체역사(Alternate History)적 설정을 빌려 일본을 둘러싼 지정학적 잠재태(潛在態)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런데 앞에서 나열한 작품들이 모두 냉전체제가 해체된 1990년대 이후에 발표된 사실은 그 자체로서 주목을 요한다. 즉, 1990년대 이후 미소 대결 구도의 냉전구조가 와해되면서 일본은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응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고, 이와 연동되면서 그때까지의 ‘전후’ 인식이 도전받기 시작했다. 그러한 가운데 ‘전후 60년’을 맞이한 2005년을 전후해 “한국전쟁을 경제적 특수로만 보는 일국주의(一國主義)적인 일본의 전후사가 아닌 동아시아의 지정학 속에서 보고자 하는 움

직임”도 나타났다.⁸⁾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표상의 ‘지연’이야말로 일본의 냉전(무)의식의 특징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탈냉전을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한 냉전 의식과 ‘분단’의 상상력에 대해서는 향후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지만,⁹⁾ 본고에서는 먼저 냉전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1950~60년대 일본의 SF적 상상력에 나타난 냉전(무)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SF적 상상력과 냉전 의식의 교차는 ‘핵’의 표상을 중심으로 고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¹⁰⁾ 이와는 달리 본고에서는 1960년대에 일본의 ‘내전(内戰)’을 그린 고마쓰 사쿄(小松左京, 1931~2011)의 『일본 아파치족(日本アパッチ族)』(1964)에 주목하고자 한다.

쓰쓰이 야쓰타카(筒井康隆), 호시 신이치(星新一)와 더불어 일본 SF를 대표하는 삼대 작가(御三家)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고마쓰 사쿄는 일본의 SF작가 제1세대에 해당한다. 소설 단행본만도 62권에 이르는 왕성한 집필 활동 외에도 만화가, 방송작가, 르포르타주 라이터, 만국박람회 코디네이터 등 다재다능한 활동을 펼친 고마쓰는 영화로도 제작된 『일본 침몰(日本沈没)』(1973)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에 비해 『일본 아파치족』은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작품은 고마쓰의 첫 장편소설이자 일본 최초의 본격 SF 장편소설로 평가되는 만큼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발표 당시 6만 부 이상이라는 “SF출판에서는 유례없는 부

8) 宇野田尚哉·川口隆行·坂口博 외(2016), p.10.

9)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남상욱, 「포스트냉전기의 ‘전쟁’에 대한 일본문학의 상상력: 무라카미 류의 『반도에서 나가라』의 ‘폭력’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08, 한국일본학회, 2016, pp.121~142.

10) 냉전기 일본의 핵을 둘러싼 무의식을 드러내는 잘 알려진 문화적 표상은 ‘피폭 괴수’ 고질라이다.

수”가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점에서¹¹⁾ 1960년대 일본의 대중적 감성에 부합했던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아파치족』을 다룬 선행연구는 재일조선인 표상과 관련지어 ‘아파치족’에 주목한 논고,¹²⁾ SF적 관점에서 포스트휴먼적 신인류의 출현 등을 논한 논고,¹³⁾ 전후론적 프레임에서 작품을 논한 논고¹⁴⁾ 등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내전이 발발해 사실상 국토가 본토와 오키나와로 분단되는 상황으로 치닫한다는 『일본 아파치족』의 서사에 주목해 SF적 상상력에 기입된 냉전의 (무)의식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eric Jameson)이 문화적 산출물로서의 서사는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행위”이며, 현실의 모순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유토피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적 무의식이 투영된 것이라 정의한 바 있듯이,¹⁵⁾ 『일본 아파치족』에는 1960년대 일본의 정치적 무의식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 작품은 냉전적 공간을 알레고리적으로 환기하는 메타포로 가득한 텍스트임이 드러날 것이다.

-
- 11) 福島正実, 『未踏の時代—日本SFを築いた男の回想録』, 早川書房, 2009, pp.178~179; 巽孝之, 『解説』, 小松左京, 『日本アパッチ族』, 角川書店, 2012, p.363.
 - 12) 朴裕河, 『共謀する表象—開高健・小松左京・梁石日の「アパッチ」小説をめぐる』, 『日本文学』 55(11), 2006, pp.35~47; 李建志, 『独立小説—戦後の「内地」』, 『比較文學研究』(91), 東大比較文學會, 2008, pp.64~85. 이 외에 고마쓰 문학과 관련된 주요한 선행 연구로, ‘고마쓰 사코 탄생 90주년/사후 10년 기념’ 특집호로 꾸려진 잡지 『現代思想』 49(11), 青土社, 2021에 수록된 논고들도 참조.
 - 13) 巽孝之(2012), 『解説』; 巽孝之, 『鉄男が時を飛ぶ—日本アパッチ族の文化史』, 『ユリイカ』 27(5), 青土社, 1995, pp.62~79.
 - 14) 村上克尚, 『戦後文学としての「日本アパッチ族」』, 『現代思想』 49(11), 青土社, 2021; 山本昭宏, 『終わる日本と終わらない日本—聖戦・革命・核戦争』, 『現代思想』 49(11), 青土社, 2021; 駒居幸, 『日本の戦後復興は暴力をどのように位置づけたか—小松左京「日本アパッチ論」』, 『文化交流研究』(8), 筑波大学文化交流研究会, 2013, pp.1~15.
 - 15) 프레드릭 제임슨, 『정치적 무의식: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서사』, 민음사, 2015.

II. ‘오사카포병공창’, ‘아파치족’, ‘철’을 둘러싼 역사적 지층

고마쓰 사코의 『일본 아파치족(日本アパッチ族)』은 1950년대 후반에 실제로 오사카에 출현했던 ‘아파치족’에서 영감을 받아 SF적 상상력을 구축한 작품이다. 여기서 ‘아파치족’이란 폐허가 된 오사카포병공창(大阪砲兵工廠)¹⁶⁾ 터에 잠입해 들어가 매몰된 고철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재일조선인 중심의 집단을 지칭하던 말로, 일본 ‘아파치족’은 고마쓰 외에도 가이코 다케시(開高健)의 『일본 삼문오페라(日本三文オペラ)』(1959), 양석일(梁石日)의 『밤을 걸고(夜を賭けて)』(1994)에 의해 반복적으로 서사화된 바 있다. 1958년에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을 수상한 가이코는 당대 순문학의 기수였으며, 고마쓰는 SF장르에서 대중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였고, 양석일은 1980년대에 등단하여 재일 2세 작가로서 입지를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처럼 문학적·실존적 입지를 달리하는 세 작가가 ‘아파치족’에 이끌린 것은 어떠한 연유에서였을까? 이 장에서는 먼저 ‘아파치’ 서사의 핵심이 되는 오사카포병공창, 아파치족, 그리고 철의 문화사적 의미를 각각 확인하기로 한다.

오사카포병공창 터는 현재의 오사카성 공원 동쪽 일대에 해당하는 부지이다. 1868년 메이지 정부 성립 직후 오사카를 일본의 군사 시설의 중심지로 삼으려는 계획이 추진되었고, 그 일환으로 1870년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한 오사카포병공창이 세워진다. 이후 잇따른 전쟁을 거치면서 오사카포병공창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패전 시에는 6만 4천여 명이 종사하는 동양 최대의 무기 공장으로 성장해 있었다. 약 130만㎡ 규모의 공장 부지에는 대포의 포신(砲身), 포탄, 전차 등을 만드는 공장이 뿔뿔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곳에서

16) 정식명칭은 ‘오사카조병창(造兵廠)’. 건립시 명칭은 ‘조병사(造兵司)’였으며 ‘오사카 육군조병창’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자 고마쓰가 『일본 아파치족』에서 쓰고 있는 명칭인 ‘오사카포병공창’을 차용한다.

생산된 무기는 조선과 만주 등지를 포함한 제국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사용되었다. 현재 야스쿠니신사의 입구에 서 있는 청동(靑銅) 도리이(鳥居)가 1887년 오사카 포병공창에서 제조되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곳은 일본의 군사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장소이다.¹⁷⁾

그런데 이처럼 일본 군수산업의 심장부였던 오사카포병공창은 패전을 하루 앞두고 미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괴멸되어 폐허가 되고, 점령기에 미국에 의해 배상지정물건으로 지정되어 사용 가능한 병기와 자재가 반출되었다.¹⁸⁾ 그 후 1952년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포병공창 터는 일본 정부에 반환되어 국유재산으로 재무국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는데, 이곳에는 여전히 많은 양의 고철이 매몰되어 있었다. 이 오사카포병공창 터를 생존의 기반으로 삼았던 이들이 전후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차별로 인해 빈민층으로 내몰린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한 ‘아파치족’이다. 패전 직후부터 현재의 오사카성공원역 북동쪽을 흐르는 네코마(猫間川)강의 북쪽 일대에 판잣집을 지어 정착했던 조선인들이 1956년경부터 오사카포병공창에서 고철을 줍기 시작했는데, 이윽고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었고 이 사실이 1958년경부터 매스컴을 타고 일본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들은 ‘아파치족’이라 명명된다. ‘아파치족’이란 존 포드(John Ford) 감독의 서부극 영화 『아파치 요새(Fort Apache)』(1948)에서 따온 것으로, 당시 ‘아파치족’의 중심을 이루던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沖繩) 출신자들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면서 내는 소리가 인디언들의 함성 소리와 흡사하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이들의 탈주극은 매스컴을 통해 연일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는데, 우에노 도시야(上野俊哉)는 당시 매스컴에 의해

17) 이상의 기술은 쓰카자키 마사유키, 신주백, 「오사카성 부근에 남겨진 근대 한일 관계의 상흔」, 『역사비평』(83), 2008, pp.373~384를 참조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당시 1300여 명의 조선인들이 강제연행되어 오사카포병공창에 종사하고 있었다. 조선과 만주에서 이용된 증기기관차 역시 이곳에서 제조되었다.

18) 巽孝之(2012), p.363.

일방적으로 명명된 ‘아파치족’이라는 호칭의 배후에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전후 일본인들의 욕망이 있었다고 지적한다.¹⁹⁾

1950년대 후반 재일조선인들이 고철을 팔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전쟁 특수가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일본을 군사기지 삼아 일본에서 병기를 조달했기에 일본 경제는 빠른 속도로 재생할 수 있었고, 24억 달러에 이르는 특수와 건설경기에 힘입어 고철은 1톤 당 3만 엔~10만 엔 사이의 가격으로 수매되는 호황기를 맞았다.²⁰⁾ 즉, 제국일본의 군수산업이 냉전을 매개로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에 접속되면서, 패전으로 고철이 된 강철이 재생되어 전후 일본의 부흥을 뒷받침하는 철의 순환 구조가 생겨난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미군 전차가 휴전을 맞은 후에 대량으로 일본으로 이송되었고, 그 가운데 양질의 강철은 재가공되어 1958년에 완공된 도쿄타워의 일부로 쓰였다는 일화는 한국전쟁과 일본의 전후 부흥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²¹⁾

전후 일본/일본인과 오사카포병공창(폐허)/아파치족(재일조선인) 사이의 경계선은 냉전의 명암이 교차하는 분단선과도 포개어진다. 일본인들이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을 통해 패전으로 인한 빈곤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냉전의 수혜를 받으며 평화와 번영의 ‘전후’로 나아갔다면, 제국의 잔재를 떠안은 채 냉전의 부채를 다시금 짊어지게 된 이들이 재일조선인이었다. 제국일본의 패전 후 일방적으로 일본 국적을 박탈당한 조선인들은 GHQ 점령하에서 냉전의 격화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관리대상으로 간주되었고, 치안을 명분 삼아

19) 上野俊哉, 『エクソダスの夜』, 『ユリイカ』, 青土社, 2000, p.128

20) 巽孝之(2012), 『解説』, p.68.

21) 生方幸夫, 『解体屋の戦後史—繁栄は破壊の上にある』, PHP 研究所, 1994. 巽孝之(2012), p.66에서 재인용.

시민적·민족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²²⁾ ‘폐허’를 뒤로 하고 평화와 번영의 ‘전후’를 살아간 일본인들과는 달리 그러한 ‘전후’로부터 소외되어 ‘폐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재일조선인들은 말 그대로 ‘전후’의 균열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처럼 ‘아파치족’이 ‘전후’의 그늘이자 균열을 상징하는 신체라고 한다면, 그 특성은 1950년대 중반 일본의 풍속을 상징하는 ‘태양족(太陽族)’과의 대비를 통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의 1956년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태양의 계절(太陽の季節)』과 그의 동생 이시하라 유지로(石原裕次郎)가 주연한 동명 영화에 등장하는 자유분방한 십대들을 모방한 젊은 이들이 출현하면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 ‘태양족 붐’은 고도성장기로 진입한 일본의 풍요를 체현한다. 미군기지에 인접한 쇼난(湘南) 해변과 긴자(銀座) 거리에 등장한 미국적이며 세련된 ‘태양족’의 신체는, 이를테면 가이코 다케시의 『일본 삼문오페라』가 그려내는²³⁾ ‘아파치족’의 동물적이며 야만적인 ‘자이니치(在日)’적 신체와는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일본의 냉전문화를 고찰한 앤 셰리프(Ann Sherif)는 1950년대에 서구 자유진영 국가 곳곳에서 출현한 ‘반항하는 젊은이’들이 공산진영의 전체주의와 대비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해방과 자본주의적 풍요를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일본 중산층의 형상이 ‘태양족’이었다고 그 냉전문화사적 의미를 읽어낸 바 있는데,²⁴⁾ ‘태양족’은 ‘무법자(outlaw)’적 형상이라는 점에서 ‘아파치족’과 공통점을 갖지만, 전자와 달리 후자는 법의 보호망 바깥으로 내몰리게 된 이들

22) 大沼久夫, 『朝鮮戦争と日本』, 新幹社, 2006, p.184.

23) 가이코 다케시는 실제로 재일조선인 시인인 김시종(金時鐘)의 안내로 아파치 부락을 방문하고 작품을 집필했다.

24) Ann Sherif, *Japan's Cold War: Media, Literature, and the Law*,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p.6. ‘태양족’에 관해서는 難波功士, 『族の系譜学—ユース・サブカルチャーズの戦後史』, 青弓社, 2007, pp.110~133도 참조.

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태양족’과 ‘아파치족’은 1950년대 냉전문화의 형성 과정에서 출현한 쌍생아와도 같은 존재이자, 1950년대 일본의 표상공간에서 서로 대척점에 위치하면서 ‘전후’의 명암을 각각 상징하는 신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사카포병공창’-‘아파치족’-‘철’이라는 기호군에는 제국에서 패전, 점령, 냉전, 고도성장기에 이르는 역사적 지층이 다층적으로 얽혀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자장 위에서 『일본 아파치족』은 어떠한 서사를 시도하고 있을까? 우에노 도시야는 프로이트가 개인의 억압된 무의식의 기억을 찾아내는 작업을 고고학이 오랜 지층으로부터 과거의 도시와 흔적을 발굴해 내는 것에 비유해 보였듯이, “일본이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한 군수물자의 잔재”인 고철을 파내는 아파치는 일본의 억압된 사회적 기억 즉, 일본사회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과거, 자신들만의 것으로 해둘 수 있다면 그리고 싶어 하는 기억을 들추어내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한 바 있다.²⁵⁾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일본 아파치족』 텍스트에 내재한 냉전의 지층을 파헤쳐 냉전 (무)의식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Ⅲ. 고마쓰 사쿄의 『일본 아파치족』에 나타난 SF적 상상력과 냉전 (무)의식

1. ‘폐허’의 대체미래로 상상된 또 하나의 ‘전후’

일본 SF문학사상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는 『일본 아파치족』은 라디

25) 上野俊哉, 「エクソダスの夜」, 『ユリイカ』 32(15), 青土社, 2000, p.127.

오가 고장나서 심심해하는 아내를 위해 쓴 이야기가 원형이 되어 완성되었다고 전해진다.²⁶⁾ 고마쓰는 구체적인 집필 경위와 관련하여, “1958년 즈음 오사카신문(大阪新聞) 사회면에 오사카에 「아파치족 나타나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만화적인 이미지가 떠올랐”고, “아파치라는 캐릭터를 가져옴으로써, 일본 멸망도 무언가 크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 집필 동기였다”고 회상한 바 있다.²⁷⁾

이 소설의 대략의 플롯은 다음과 같다. 1960년대로 추정되는 일본에서, 오사카포병공창 터에 철을 먹는 신인류 집단인 ‘아파치족’이 출현한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박멸하고자 군사작전을 펼치지만, 철을 먹는 ‘식철(食鉄) 인종’ 집단은 전국 각지에 출현하고 그 수가 점차 늘어나 일본의 정치·경제 구조까지 뒤흔들기에 이른다. 독립된 거류지를 요구하는 아파치족과 일본 정부 사이에 협상이 시도되지만 난항하는 사이, 정재계와 결탁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아파치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하면서 일본군과 아파치 사이에 ‘대(大)아파치 전쟁’이 발발한다. 아파치족은 추장 니게 지로(二毛次郎)의 지도하에 일본정부군에 맞서 ‘초토(焦土) 작전’을 전개한다. 이 전쟁에서 아파치족이 승리한 결과 일본은 멸망하고 폐허 위에 ‘아파치 국’이 탄생한다. 결말에 삽입된 ‘에필로그’의 후일담에 따르면, 디아스포라가 된 일본국민들은 망명정부를 오키나와에 수립하고 유엔의 승인을 받아 오키나와 본도와 주변 섬들 일대를 영토로 하는 새로운 ‘일본’을 세운다. 일종의 분단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결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쓰미 다카유키(巽孝之)가 “『일본 아파치족』의 묘미는 민족투쟁으로부

26) 小松左京, 『SF魂』, 新潮社, 2006, p.61.

27) 小松左京, 『小松佐京自伝—実存を求めて』,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08, pp.125~126.

터 인류의 초진화(超進化)로 문제를 시프트시킨 점에 있다”²⁸⁾고 평한 바 있듯이, 고마쓰의 ‘아파치족’ 형상화는 가이코-양석일로 이어지는 리얼리즘 소설의 계보와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재일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군상을 통해 ‘아파치족’을 그려낸 가이코의 소설에서 ‘철을 웃는다/먹는다(鉄を笑う/食う)’라는 은어가 ‘철을 흠친다’는 의미로 쓰였다면, 고마쓰의 소설에서 ‘아파치족’은 문자 그대로 철을 먹는 ‘초인류적’ 집단으로 재탄생하게 된다.²⁹⁾ 이처럼 철을 먹는 초인류의 출현이라는 SF적 설정은 일견 현실 세계의 역사적 지층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냉전 시대에 SF가 풍부한 알레고리를 제공한 바 있듯이, 비(非)리얼리즘적 설정이 곧바로 현실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마쓰의 SF서사에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소설의 첫머리에 삽입된 「서문(まえが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의 분신과도 같아 보이는 ‘저자’에 의한 「서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어느 날-나는 오사카성 변두리에 서서 해가 저물어가는 히가시구(東区) 스기야마초(杉山町)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앞에는 공장 지붕들이 들어서고, 나의 오른편, 즉 남쪽으로는 몇 년 전에 완성된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다-눈앞의 고가를 오사카 간조센(環状線)-예전에는 조토센(城東線)으로 불리던 전차가 퇴근길 사람들을 가득 태

28) 巽孝之(2012), p.365.

29) 고마쓰는 실제로는 집필 당시 가이코의 소설을 알지 못했으며, 「일본 아파치족」 발표 후에 두 작가가 만나 의기투합했다고 회상한 바 있다. 고마쓰의 소설에서는 ‘제1차 아파치 시대’에 포병공창 터 중심에서 밀려난 재일조선인들이 포병공창 터 건너편에 거주하면서 아파치족과 교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즉, 현재 포병공창 터에 서식하고 있는 아파치족은 재일조선인 집단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우고 달리고 있었으며, 마을 위에는 네온사인인 반짝이기 시작하고, 이코마(生駒)의 산등성이는 벌써 동녘 밤하늘에 녹아들고 있었다—그것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대도시 한 구역의 저녁 풍경이었다.(7)³⁰⁾

이처럼 오사카성의 변두리에 서서 평화와 번영이 시민적 일상을 감싸고 있는 고도성장기 일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던 저자는, 이윽고 이 구역이 과거에 오사카 최대의 ‘폐허’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며 그곳에 살았던 고철 도둑 집단 ‘아파치족’을 떠올린다. 전후 ‘부흥’을 통해 ‘갯더미(焼跡)’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같은 자리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새로운 도로가 깔리고 자동차가 범람하는, 즉 “더 이상 전후는 아니라고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일본의 도시공간에 서서, ‘나’는 “폐허의 아나키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폐허와 함께 살았던’ 아파치족의 기억을 소환하고, “그들의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8)라고 자문한다. 마치 하품이 날 것만 같은 고도성장기 일본의 안정된 질서와는 대조적으로 “손댈 수 없는 무질서와 뿔어져 나오는 에너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었던 ‘폐허’를 회상하던 ‘나’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그리하여 나는 ‘아파치’ 이야기를 쓰고자 마음먹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고철 도둑이 아니라 무질서한 에너지로 가득 찬 ‘폐허’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동시에 그것은 이처럼 말끔히 정리된 오늘날의 폐허의 모습이 아닌, 폐허 자체의 또 하나의 미래, 또 하나의 가능성일지도 모른다—이 황당무계한 가공(架空)의 이야기는, 내 안에 여전히 완강하게 살아있는 ‘전후’인 것이다.(9)

30) 小松左京, 『日本アパッチ族』, 角川書店, 2012. 이후 본고에서는 이 작품의 인용은 괄호 속에 쪽수를 표시한다.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가 지적하듯이, 여기에는 “전쟁에 패배한 어른들이 망연자실해 있을 때, 잿더미가 된 폐허를 보면서 길들여지지 않은 에너지가 발견한” ‘잿더미·암시장파(燒跡・闇市派)’ 세대의 공통감각³¹⁾이 엿보인다. 그와 같은 감각에 입각해 『서문』의 ‘저자’는 ‘아파치’의 이야기를 통해 ‘폐허’의 대체미래, 즉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었던 또 다른 일본의 모습을 그려 보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상기 인용문에서 언급된 ‘전후’란 1956년 『경제백서(經濟白書)』가 “더 이상 전후는 아니다”라고 선언한 맥락에서의 ‘전후’, 즉 전후부흥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패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공간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는 이 두 가지 용법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전쟁의 특수에 힘입어 전후 부흥이 완료된 1955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를 ‘제1차 전후’와 ‘제2차 전후’로 나누어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³²⁾ 이러한 오구마의 용법을 따르자면, 일본 정부와 아파치의 대결을 그려내는 『일본 아파치족』은 ‘폐허’와 ‘제2차 전후’가 격돌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정의 이면에는 고마쓰의 동시대 일본에 대한 강렬한 위화감이 깔려 있었다. 그는 1958년 신문에서 아파치족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일본 아파치족』을 집필하기 시작해 도쿄 올림픽이 개최된 1964년에 작품을 완성했다.³³⁾ 이 시기는 한국전쟁의 경제적 특수를 발판으로 고도성장에 돌입한

31) 川村湊(1999), 「笑い、歌う朝鮮人—梁石日」, 『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 平凡社, p.212.

32) 小熊英二, 『民主と愛国—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2003, pp.11~13. 이 글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전후’는 패전 이후의 시공간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법으로 쓰기로 한다.

33) 小松左京(2006), pp.61~65.

일본사회가 1960년의 안보투쟁을 거쳐 1964년 도쿄 올림픽으로 향해가면서 사회적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로, 고마쓰는 작품 발표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다.

이런 일본 따위 괴물에게 줘버리자는 나의 절망감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런 전쟁을 하고 지고서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오만함. 좌익도 분열되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이런 국가는 인간의 나라라고는 생각하기도 싫다는 통렬한 비꼼을 담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아파치족』은 나의 실존주의 작품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³⁴⁾

이 언급에서 『일본 아파치족』이 허구세계에 구축한 ‘대체미래’를 통해 동시대 일본을 비평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고마쓰의 전후에 대한 이토록 통렬한 거부는 어떠한 시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일까?

『일본 아파치족』이 발표된 해인 1964년 6월에 잡지 『사상의 과학(思想の科学)』에 게재된 「종말관」의 종말(『終末観』の終末)이라는 글에서, 고마쓰는 자신의 전중·전후 체험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전중·전후 체험의 유일한 패턴이라면, 배반당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종말’의 표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 성전(聖戰), 둘, 혁명, 셋, 핵전쟁—정확히 말하자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직 완전히 배반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때—1950년 당시—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같은 대변동(cataclysm)이라든지 종말전쟁(Harmagedon)이라든지 하는 이미지는 빛바랜 듯하다. (중략) 혁명이든 핵전쟁이든, 그것이 이미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 총공격을 받을 것 같다. 하지만 양쪽 모두가 ‘시리어스’한

34) 小松左京(2006), p.64.

종말 이미지를 배반하고, 어물쩍 '개량'되어 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³⁵⁾

여기서 고마쓰가 배반당한 세 가지 '종말'로 꼽은 '성진', '혁명', '핵전쟁'은 각각 그가 경험한 태평양 전쟁, 좌익 활동, 냉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고마쓰의 이력을 간단히 확인하기로 한다.

1931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마쓰 사쿄는 전쟁이 지속되어 언젠가 자신도 징병되어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15살에 살아서 패전을 맞이했다. 이때 마주한 '폐허'는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에너지를 품은 공간으로 각인되었고, 이는 고마쓰에게 있어 전후의 '원풍경(原風景)'을 이루게 된다. 그 후 1949년 교토대학(京都大学)에 진학한 고마쓰는 공산당 교토대학 조직에 입당하여 1951년 말까지 당원으로 활동했다.³⁶⁾ 이는 마침 한국전쟁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로, 작가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 바 있다.

좌익 활동도 역시 반전운동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 당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규슈대학에서 시작된 반전학생동맹의 움직임에 응해 교토대학에서도 6월에 반전학생동맹(反戦学生同盟) 결성대회를 열었다. 나도 그 중심 멤버 중 한 사람으로, 반전학생동맹에서 낸 『반전평화시집(反戦平和詩集)』에 「너와 함께(きみと共に)」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당연히 반전 데모도 했는데, 소감파(所感派) 지도부는 그런 데모로는 안 된다고 했다. 결국 교토대학 세포는 처분당하고 나도 당 활동 제한처분이라는 것을 받아서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³⁷⁾

35) 小松左京, 「終末観」の終末, 『小松左京全集完全版』, 第28巻, 城西国際大学出版会, 2006, pp.334~336.

36) 小松左京(2008), p.37; 小松左京(2006), pp.34~36.

37) 小松左京(2006), p.35

한국전쟁 당시 일본 공산당은 ‘무력혁명’ 노선을 채택하고 반전운동을 전개했다. 그러한 가운데 고마쓰는 일본의 패전 후 불과 5년 만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위기감을 느끼고 반전운동에 참가했음을 위의 발언으로 알 수 있다.³⁸⁾ 한편, 이 당시 공산주의 진영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고마쓰가 공산당 활동에 몸담고 있었던 1950년 1월 일본공산당은 코민테른으로부터 의회주의를 비판받으면서 국가 단위의 혁명을 주장하는 주류 ‘소감파’와 세계동시혁명을 추구하는 반주류 ‘국제파’로 당내가 분열되었다. 앞에서 인용한 글에서 고마쓰가 토로한 “좌익도 분열되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전후에 대한 ‘절망감’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고마쓰에게 좌익운동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녔었는지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작가의 말에 따르자면, 당시 학생들 사이에 “공산당은 멋있다”는 감각이 만연해 있었고, 자신 또한 그 정도의 막연한 감각으로 공산주의에 공감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점차 교조주의적 당노선에 대한 환멸과 실망감, 당의 지령을 받아 농민을 조직하기 위해 투입된 산촌공작대(山村工作隊) 활동에서 절감한 공산주의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³⁹⁾ 등을 겪으면서 “반전운동이나 학생조직 활동에는 열중했지만, 공산주의 그 자체에는 전혀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⁴⁰⁾ 좌익 활동의 상세한 내력과 관련해 작가 자신은 더 이상의 말을 아꼈고, 종래의 고마쓰론은 좌익 운동이 고마쓰에게 미친 영향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좌익운동의 좌절이 너무나 쓰라린 경험이었기 때문에 선불리 말하기를 삼갔다

38) 또한 고마쓰는 자신에게 좌익운동은 “중도에 끝난 (태평양)전쟁의 연장”로서의 의미를 지녔다”고 발언한 바 있다. 小松左京(2019), 『廢虛の文明空間』, 『小松左京コレクション2 未来』, 河出書房新社, p.33.

39) 小松左京(2006), p.37.

40) 小松左京(2006), p.36.

고 해석한 야마모토 아키히로(山本昭宏)의 지적⁴¹⁾처럼, 혁명운동으로부터의 이탈과 전향(轉向) 경험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보는 입장도 제기된 바 있다.

다시 「종말관」의 종말로 돌아가자면, 이 글은 『일본 아파치족』이 발표된 1964년 당시 고마쓰가 갖고 있던 시대 감각을 잘 보여준다. “1950년대 당시 예상했었던 대변동이나 종말전쟁과 같은 이미지는 색이 바랬”으며, 양쪽 모두 ‘시리어스한’ 종말 이미지를 배반하고 서서히 ‘개량’되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료의 말은, 뒤집어 말하자면 1950년대까지는 ‘혁명’과 ‘핵전쟁’이 ‘시리어스한’ 대상으로 경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고마쓰는 1960년대에 이르러 그러한 대변동의 가능성이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혁명은 더 이상 진지한 목표가 될 수 없고, 핵전쟁도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김빠진’ 냉전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미분화 상태의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제1차 전후’를 지나 고도성장하 안정기로 접어든 사회 변화와도 궤를 같이한다.

정리하자면, 전후 일본은 폐허에서 출발해 한국전쟁의 특수를 통해 경제 부흥을 이뤘고, 1950년대 중반 무렵 고도성장기로 돌입했다. 한국전쟁 초기에는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고 1950년대까지는 일본 내 좌익 활동 역시 활발했지만, 1960년대에는 그러한 현실이 퇴조하고 평화와 번영의 ‘전후’가 도래했다는 시대감각이 지배적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쓰인 『일본 아파치족』이 그리는 일본은 어떠한 모습일까?

2. SF적 상상력으로 쓰인 ‘전후’의 우화와 냉전 (무)의식

SF적 장치를 빌어 쓰인 풍자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아파치족』은

41) 山本昭宏(2021), pp.72~73.

‘전후’에 대한 어떠한 우화를 전개하고 있을까? 아파치 표상에 투사된 냉전적 메타포에도 주목하면서 그 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아파치족』이 그리는 근미래 일본에서는 ‘혁신 세력’이 분열되어 정치적 기능을 잃고, ‘보수 세력’이 주도한 헌법 개정으로 재군비가 이루어졌으며, 국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인권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인 기다 후쿠이치(木田福一)는 ‘실업죄(3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유죄)’를 선고받고 유형지로 추방된다. 오사카포병공창 터로 설정된 유형지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사막과도 같은 폐허로 묘사되는데, 물도 식량도 없이 불모지인 유형지를 헤매던 기다는 포병공창 터에 서식하는 아파치 집단을 만나 그 일원이 된다. “무적자(無籍者), 전과자, ‘쓰레기(屑)’와도 같은 인간”(109)들의 집단인 이들은, 식량이 없는 폐허에 적응하기 위해 고철을 먹기 시작하면서 신체의 일부가 “강철화(스틸라이제이션)/금속화(메탈라이제이션)”한 사이보그 인류인 식철(食鉄) 인종으로 진화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정부는 추방지에 작전부대를 투입하여 아파치족의 진압을 꾀한다. 하지만 전근대적 무기밖에 없는 아파치는 근대식 장비를 앞세운 일본군대에 맞서 육군 1개 부대를 전멸시킨다. 그 무렵 전국 각지에서 철을 먹는 집단이 출현하는데, 그중 오사카 아파치의 대표는 TV에 출연하여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내쫓기고 말살당하려 하고 있었던 피해자”라며 육군 부대와와의 전투는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1. 아파치는 향후 부당한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사회의 안녕을 해칠 의사는 없다.
2. 아파치는 현재 거의가 무적자(無籍者)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일본 국적을 요구할 의사는 없다. 단, 국적이탈자로서, 일본 국내에 거주

지를 만들어 거류할 권리를 요구할 것임-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파치는 사회의 모든 뒷면으로 잠복해 들어가 독립운동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

3. 거류지 내 자치를 인정할 것-거류지로서, 긴키(近畿)지구 추방지정지(追放指定地), 효고현(兵庫縣) 아마가사키시(尼崎市) 해안지대의 일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해안지대 일부, 기타규슈시(北九州市) 야하타(八幡) 근방, 그 외 몇 군데를 요구한다. 과도한 요구는 하지 않는다. 거류지 내 자치를 인정한다면, 거주지 밖에서는 치안상 일본국의 모든 법률을 준수할 의향이 있다.

4. 아파치는 독립자치의 평화적 생활을 원하고 있다.

아파치와 일본국의 평화적 공존 만세!

아파치족 대수장 만세! (188)

“지금까지 사회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숨어 살고 있던 아파치족이 전국 삼천만 명의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189)하면서, 일본은 일본의 법이 지배하는 일본국과, 그 법의 효력이 닿지 않는 거류지=비(非)일본국으로 국토가 양분될 위기에 봉착한다.

이처럼 “일본 국내에 별개의 주권을 지닌 국내 국가”가 성립될 위기에 놓인 초유의 국가적 비상사태 앞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우유부단하기만 하다. 행정적 절차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관계부처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종일관 무력한 대응을 보이는 일본정부를 보면서 “관료주의 만세! 법치국가 만세다”(142)라고 환호하는 아파치의 대사는 일본적 관료주의 행정을 비꼬면서, ‘민주적’ 법치국가 일본이 지닌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 ‘식철’ 습관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우선 식철 현상을 그 전염성과 습관성으로 볼 때 일종의 전염병 내지는 마

www.kci.go.kr

약중독 유사 현상으로 간주하고, 후생성(厚生省) 마약대책본부, 전염병연구소에 확대방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중략) 여기서도 정부의 판단 착오가 대책을 늦췄다. ‘식철병’을 잠정적으로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서둘러 임시방역태세를 취하거나, ‘식철 습관’을 마약습관과 마찬가지로 보고 습관적 감염자의 적발과 철저한 격리를 실시하거나, 그 둘 중 어느 쪽이든 어쨌거나 강력하게 추진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취한 태도는, 사태수습에 관해 어느 정도 활발한 노력은 계속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종래와 변함없는—즉, 소동이 진정되기를 ‘기다리자’는 태도였다.(251~252)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감염과 바이러스는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침투에 대한 익숙한 메타포이기도 했는데, 정부가 무사안일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식철인’은 ‘슬럼’과 ‘빈곤가정 밀집지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나간다.

‘아파치’를 마주한 국민들 역시 안일한 반응을 보인다. 처음에는 막연히 아파치를 두려워하던 일본인들은 이윽고 이들을 동정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무법자’들이 경찰을 꼼짝 못 하게 만드는 사태를 통쾌하게 여기기까지 한다. 이윽고 아파치는 점차 하나의 ‘사회현상’처럼 인기를 끌게 되고, 일반 시민들은 이들이 철을 먹는 모습을 구경하고 스스로도 일종의 패션처럼 ‘식철’을 즐기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기습전법으로 ‘아파치삼법안(アパッチ三法案)’이 성립되었을 때 국민들의 반응이다. 아파치 등록법, 식철금지법과 더불어 전국민의 혈액검사를 강제하는 혈액등록법을 한 데 묶은 ‘아파치 삼법’을 중의원이 통과시키자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대국민운동이 일어나고, 이는 내각 타도 운동으로까지 발전한다. 전국 각지에서 ‘아파치법 저지운동’이 전개되고 연일 데모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 국민적 정치운동의 내실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어느 계층이나 아파치 문제를 정확하게 생각하려는 사고는 완전히 빠져있었다. 국민들에게는 사실 아파치 문제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던 것이다. 그들은 단지, 종래의 민주주의적인-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생활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국민운동은 바로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재확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실효적으로는 정부를 마침내 총사직 시키는 데 성공했다. 정부가 총사직하자, 대다수 국민은 그것으로 일단 만족하고, 법안이 총사직 전에 참의원을 통과하여 결국 성립해 버린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이것으로 보아도 국민들이 정말로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294)

명백히 미일안보조약의 갱신을 둘러싸고 전개된 1960년 안보투쟁의 우화로 읽히는 이 장면은, 국회를 구경하던 아파치가 “민주주의의 운영은 느긋한 쇼와 닮았다”(202)라고 논평하는 대사가 곁들여짐으로써, 주체적 정치 감각을 상실한 채 일종의 ‘놀이(ごっこ)’처럼 전략해 버린 허울뿐인 ‘전후민주주의’에 대한 통렬한 풍자가 된다.

한편, 일본 정부 및 국민과는 대조적으로 아파치 측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간다. 일본 국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아파치족은 공업지역과 ‘저변사회’를 중심으로 “맹렬한 기세로” 증식하는 ‘식철인’들을 규합하여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전국적 연락조직을 통해 거류지와 자치권을 요구하며 시위활동을 전개한다. 흡사 공산당의 세포조직을 연상시키는 아파치의 묘사에는 이 밖에도 냉전적 수사가 다수 동원된다. 국수(国粹)파가 ‘아파치는 빨갱이(アカ)다’(300)라고 선전활동을 벌이자 진보적 지식인들은 ‘아파치도 또한 인간’이며 자신들은 ‘아파치의 편’이라고 응수한다. 이러한 가운데 아파치족의 움직임은 중앙정부의 통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자치

체를 자극하여 “간사이 방면을 공화국화 하려는 운동”(296)까지 대두되기에 이른다. 아파치들은 노동조직에 남아있었던 ‘공투(共鬪) 조직’ 문화를 활용하기도 하며, 포로로 포획된 적군(일본군) 병사에게 ‘식철’을 강요하여 자신들에게 동화시킨다. 그리하여 일본열도를 잠식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가던 아파치는, 끝내 후지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본군과의 대격돌 끝에 원폭포(原爆砲)와 핵탄두 미사일까지 동원한 상대군을 전멸시키고 초토화된 폐허 위에 새로운 국가를 수립한다. 그 후 망명정부를 거쳐 재건된 일본은 오키나와 본도와 주변 섬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가공(架空)의 이야기는 현실의 전후 일본 사회에 대한 풍자로 가득하다. 일본 최초의 SF 전문지 『SF매거진(SFマガジン)』의 초대(初代) 편집장을 지낸 후쿠시마 마사미(福島正実)가 이 작품에 대해, “전쟁에 의해 뒤틀리고, 전후에 의해 상처입고 안보투쟁에 의해 분쇄된 고마쓰 사료라는 작가의 영혼의 단편”을 모아 만든 ‘모자이크’이며, “말 그대로 철을 먹는 것 같은 강렬한 현실(現狀) 부정”이 담긴 “철저한 우화 SF”라고 평한 것처럼,⁴²⁾ 『일본 아파치족』에는 작가 고마쓰의 실존적 경험이 다층적으로 녹아 있다. 또한 비평가 아즈마 히로키(東浩紀)가 ‘아파치족’이 갖는 상징성을 “전후 일본이 부흥의 과정에서 망각하고 배제한 다양한 가능성의 우의(寓意)”⁴³⁾라고 해석한 것처럼, 고마쓰의 ‘아파치’ 서사는 다양한 알레고리적 해석이 가능하다. 작가 자신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패러디”⁴⁴⁾ 라고도 명명

42) 福島正実(2009), pp.180~181.

43) 東浩紀(編), 『小松左京セレクション 日本』, 河出書房新社, 2019, p.150.

44) 小松左京(2008), p.125; p.129. 小松左京(2006), p.63. 고마쓰는 『일본 아파치족』에 대해, “아파치에 의한 해방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패러디이고, 덤으로 주인공은 혁명 후에 숙청된다는 이야기”이며, “아파치”는 ‘롬펜 프롤레타리아’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아파치족』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야”라고만, 그는 말했다. “이건 비유가 아니야. 알겠나?” / “괴물인가?”라고 나는 물었다. / “괴물-그저에 가깝지. 아무튼 저들은 인간의 쓰레기

한 이 작품은 ‘혁명소설’로도 읽힐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아파치’는 계급, 민족,⁴⁵⁾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의미내용을 환기하면서도 어느 하나로만 환원되지 않으며, 그렇기에 독자의 다양한 무의식을 투사 가능한 기표로서 기능하면서 더욱 강력한 알레고리적 환기력을 지닌다.

고마쓰의 ‘아파치족’ 재현에 다층적으로 투영된 냉전적 수사는 일본이 명백히 냉전의 자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일본 아파치족』의 서사를 통해 드러나는 일본인들의 냉전 감각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고마쓰가 그린 내전과 분단의 서사를 한국전쟁과 대비시켜볼 때 일본의 냉전 의식의 특징은 명확해진다.

첫째, 한국전쟁이 냉전 시대 헤게모니 국가들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것과는 달리, 고마쓰가 그리는 ‘내전’은 일본열도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철저히 내적인 힘들 간의 대립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그 내전의 대립축은 ‘폐허’ 대 ‘제2차 전후’ 사이에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일국주의적 ‘전후’ 의식이다. 이는 냉전의 자장 속에서 ‘전후’ 안정기를 구가했던 일본의 냉전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 아파치족』의 ‘아파치족’ 묘사에는 냉전적 수사가 다수 투사되지만, 이 작품의 분위기는 냉전 시대 미국과 한국 등을 지배했던 편집증적 불안감(paranoia)과는 달리 시종일관 유머러스한 기조를 유지한다. 이 소설에

(屑)야. 쓰레기 그 자체지. 고철(스크랩)인 거지.” / “일본인이지?” / “일본인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야. 룸펜(屑) - 그것일 뿐이야”(56).

45) 이를테면 이누이 에이지로(乾英治郎)는 “이 작품에서 후경화되어 있는 문제를 굳이 전경화시켜 보자면, 일본제국주의 시대 아래 식민지화(혹은 준식민지화)된 ‘대한제국’과 ‘류큐왕국’의 후예들이 전후일본사회에서 버림받은 다른 ‘궁민(窮民)’들과 함께 일본에 <혁명>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일본인’을 절멸시킨다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도 있다”고 평한 바 있다. 乾英治郎, 「小松左京「日本アパッチ族」論—<進化>の夢・<革命>の幻想」, 『立教大学日本文学』(115), 立教大学日文学会, 2016, p.220.

서 ‘아파치’는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과도 같은 존재로 그려지지만,⁴⁶⁾ 그러한 묘사가 극단적 혐오나 공포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오사카 사투리로 경쾌한 입담을 구사하는 아파치는 해학적 이미지로 재현된다. 이는 한 반도에서 냉전의 적대적 대립 관계가 야기한 폭력과 학살의 트라우마적 기억과 정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냉전 시대 미국인들이 지녔던 편집증적 두려움⁴⁷⁾과도 다른 질감을 지닌다. 일본 정부와 아파치와의 대결은 시종일관 긴장감이 결여된 느슨하고 ‘맥빠진’ 내전으로 펼쳐지는데, 이는 이 소설이 이미 ‘혁명’과 ‘핵전쟁’의 가능성이 실효된 것으로 여겨졌던 시점에 쓰인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 아파치족』은 작가 스스로가 의도했던 것처럼, “오사카 사투리의 만담조로 일본의 멸망마저 크게 웃어버릴 수 있는 소설”⁴⁸⁾이자, “일본 국가와 대결하는 아파치의 폭력을 ‘웃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가시화한 작품”⁴⁹⁾이 된다. 물론 본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웃음’에는 전후 일본 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가 깃들여 있다. 하지만 냉전이 ‘(준)전시’ 상황으로 지속되면서 적대 세력에 의한 국가체제 전복이 현실적 위협으로 상존했던 한국에서는 서슬 퍼런 검열 아래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불가능했었다. 이 사실을 상기한다면, 적대세력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안일함’조차도 자조적으로 패러디하며 일종의 ‘블랙 코미디’와 같은 유머로서 소비할 수 있었던 사실이야말로, 일본이 냉전이 야기한 날 것 그대로의 폭력으로부터 거리

46) 냉전 시대 미국의 대중문화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종종 감정이 없는 ‘비인간적’ 형상으로 재현되었다.

47) 이블테면 세릴 힌트·마크 볼드, 『SF연대기: 시간 여행자를 위한 SF 랜드마크』, 허블, 2021, pp.244~247 등을 참조.

48) 小松左京(2006), p.63.

49) 駒居幸(2013), pp.1~15.

감이 확보된 안전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⁵⁰⁾ ‘전후’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그 보호막에 기대어 ‘냉전’과 유희하는 것조차 가능했던 것이다.

IV. 나가며: ‘전후’의 실효와 ‘냉전’적 타자의 회귀

본고에서는 고마쓰 사료의 『일본 아파치족』을 중심으로 SF적 상상력과 냉전(무)의식의 교차를 살펴보았다.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동시대인들을 겨냥한 풍자소설로 쓰인 『일본 아파치족』은, SF의 대표적 효과로 꼽히는 ‘인지적 소외’를 통해 ‘전후’를 낫설게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전후’의 일상에 안주하는 고도성장기 일본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마쓰는 이 소설에서 ‘아파치=폐허’와 ‘일본 정부=제2차 전후’의 대결에서 패한 일본이 다시 폐허로 돌아가는 서사를 펼쳐 보임으로써 동시대 일본에 대한 안티테제로 삼고자 시도한다. 그런데 작가가 찾고자 했던 ‘전후’의 또 다른 가능성=대체미래란, ‘전후’에서 ‘폐허=기점’으로 시간 축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후’에 의해 배제되어온 것들을 마주하는 데에서부터 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1990년대에 진행된 냉전의 해체와 함께 그 냉전 체제에 의해 지탱되었던 일본의 ‘전후’가 실효되면서, 일본 사회는 전후=냉전의 타자의 회귀를 마주하게 된다. ‘아파치’ 역시 1990년대 들어 ‘아파치 부락’ 출신의 재일작가 양석일의 소설 『밤을 걸고』를 통해 새롭게 서서화된다. 양석일의 ‘아파치’ 서사가 가이코-고마쓰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아파치 부락’에서 끝나지 않고 오무라 수용소(大村收容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설정에 대해 양

50) 이는 같은 자유진영에 속하면서도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공산당이 합법 조직이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석일은, “아파치 문제는 제일조선인 문제이고, 그건 필연적으로 오무라 수용소와 연결되어 있다”⁵¹⁾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2월 나가사키현(長崎県) 오무라시(大村市)에 문을 연 오무라수용소는 한국전쟁의 피난민과 외국인등록령을 위반한 조선인들을 남한으로 강제송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밤을 걸고』가 그려내는 오무라 수용소는 말 그대로 한반도 ‘분단’의 축소판이자, 냉전적 폭력이 작동하는 전쟁터와도 같은 공간이다. 소설 속 한 인물이 말하는 “여긴 일본열도의 똥구멍 같은 곳이라, 여기서 우릴 똥처럼 배설해버리려는 거지”⁵²⁾라는 대사 그대로, 일본은 냉전의 타자를 열도 바깥으로 배출함으로써 “냉전적 폭력의 외부화”⁵³⁾를 꾀한다. 이러한 묘사는 전후 일본에서 냉전이 망각되어온 방식을 폭로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1990년대 이후 회기하는 냉전의 기억을 끌어안고 탈냉전 이후의 ‘대체미래’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는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2년 11월 30일

논문 심사일 : 2022년 12월 10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12월 11일

51) 梁石日, 『「闇」の想像力』, 解放出版, 1995.

52) 梁石日, 『夜を賭けて』, 日本放送出版協会, 1994, p.122.

53) 서동주, 「전후-박-존재’의 장소는 어디인가: 양석일의 〈밤을 걸고〉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3, 2016, p.336.

참고문헌

- 고바야시 코우키치, 「전쟁의 기억과 마주 보는 문학: 일본과 재일동포의 문학을 아우르며」, 『한국학 논집』 Vol.41,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 나가네 다카유키, 「훗타 요시에 『광장의 고독』의 시선-한국전쟁과 동시대의 일본문학」, 『한국어와 문화』 Vol.7,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 2010.
- 니시무라 히데키(저), 심아정·김정은·김수지·강민지(역), 『‘일본’에서 싸운 한국전쟁의 날들: 재일조선인과 스이타사건』, 논형, 2020.
-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남상욱, 「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 한국전쟁과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비교한국학』 23(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 _____, 「포스트냉전기의 ‘전쟁’에 대한 일본문학의 상상력: 무라카미 류의 『반도에서 나가라』의 ‘폭력’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08, 한국일본학회, 2016.
- 서동주, 「전후의 기원과 내부화하는 ‘냉전’: 훗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을 중심으로」, 『일본사상』 28, 일본사상사학회, 2015.
- _____, 「전후-밖-존재’의 장소는 어디인가?: 양석일의 〈밤을 걸고〉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3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세릴 빈트·마크 볼드, 『SF연대기: 시간 여행자를 위한 SF 랜드마크』, 허블, 2021.
- 소명선,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와 ‘한국전쟁’: 1950년대의 일본열도가 본

- ‘한국전쟁’, 『일본근대학연구』 61, 한국일본근대학회, 2018.
- 신주백, 「오사카성 부근에 남겨진 근대 한일 관계의 상흔」, 『역사비평』 83, 2008.
- 프레드릭 제임슨 (저), 이경덕·서강목 (역), 『정치적 무의식: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서사』, 민음사, 2015.
- 東浩紀(編), 『小松左京セレクション 日本』, 河出書房新社, 2019.
- 乾英治郎, 「小松左京「日本アパッチ族」論—<進化>の夢・<革命>の幻想」, 『立教大学日本文学』 115, 2016.
- 上野俊哉, 「エクソダスの夜」, 『ユリイカ』, 32(15), 青土社, 2000.
- 生方幸夫, 『解体屋の戦後史—繁栄は破壊の上にあり』, PHP 研究所, 1994.
- 宇野田尚哉·川口隆行·坂口博·鳥羽耕史·中谷いずみ·道場親信(編), 『「サークルの時代」を読む—戦後文化運動研究への招待』, 影書房, 2016.
- 小熊英二, 『民主と愛国—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2003.
- 小田実·古井由吉·井上ひさし·小森陽一, 「座談会昭和文学史(24) 戦後の日米関係と日本文学——朝鮮戦争から九·一一まで」, 『すばる』 25(1), 集英社, 2003.
- 大沼久夫, 『朝鮮戦争と日本』, 新幹社, 2006.
- 川口隆行, 「山代巴「或るとむらい」論—朝鮮戦争と原爆表現の生成」, 『社会文学』(43), 『社会文学』編集委員会, 2016.
- 川村湊, 『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 平凡社, 1999.
- 金石範 외, 『コレクション 戦争と文学 1 朝鮮戦争』, 集英社, 2012.
- 黒川伊織, 「<まいおちるピラ>と<腐るピラ>—朝鮮戦争勃発直後の反戦平和運動と峠三吉·井上光晴」, 『社会文学』 38, 『社会文学』編集委員

- 会, 2013.
- 駒居幸, 「日本の戦後復興は暴力をどのように位置づけたか—小松左京『日本アパッチ』論」, 『文化交流研究』8, 筑波大学文化交流研究会, 2013.
- 小松左京, 『SF魂』, 新潮社, 2006.
- _____, 『小松左京自伝—実存を求めて』,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08.
- _____, 「終末観の終末」, 『小松左京全集完全版』, 第28巻, 城西国際大学出版会, 2006.
- _____, 『日本アパッチ族』, 角川書店, 2012.
- _____, 『やぶれかぶれ青春期・大阪万博奮闘記』, 新潮社, 2018.
- _____, 「廃虚の文明空間」, 『小松左京コレクション2 未来』, 河出書房新社, 2019.
- 異孝之, 「鉄男」が時を飛ぶ—日本アパッチ族の文化史」, 『ユリイカ』27(5), 青土社, 1995.
- 張允麿, 「朝鮮戦争をめぐる日本とアメリカ占領軍—張赫宙『嗚呼朝鮮』論」, 『社会文学』32, 『社会文学』編集委員会, 2010.
- 福島正実, 『未踏の時代』, 早川書房, 1971.
- 松居りゅうじ, 「朝鮮戦争と抵抗雑誌『石ツブテ』を語る」, 『社会文学』23, 『社会文学』編集委員会, 2006.
- 丸川哲史, 『冷戦文化論—忘れられた曖昧な戦争の現在性』, 双風舎, 2005.
- 道場親信, 『下丸子文化集団とその時代—一九五〇年代サークル文化運動の光芒』, みすず書房, 2016.
- 村上克尚, 「戦後文学としての『日本アパッチ族』」, 『現代思想』49(11), 青土社, 2021.
- 朴裕河, 「共謀する表象—開高健・小松左京・梁石日の「アパッチ」小説をめぐって」, 『日本文学』55(11), 日本文学協会, 2006.

山本昭宏, 「終わる日本と終わらない日本—聖戦・革命・核戦争」, 『現代思想』
49(11), 青土社, 2021.

梁石日, 『夜を賭けて』, 日本放送出版協会, 1994.

李建志, 「独立小説—戦後の「内地」」, 『比較文學研究』(91), 東大比較文學會,
2008.

Ann Sherif, *Japan's Cold War: Media, Literature, and the Law*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Abstract

Cold War (Un)consciousness and the Imagination of Division as Manifested in the Japanese SF Genre

: With a Focus on Sakyo Komatsu's *Nihon Apache-zoku*

Jiyoung Kim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section of Science fiction(SF) imagination and Cold War (un)consciousness in the 1950s and 1960s, focusing on Sakyo Komatsu's *Nihon Apache-zoku*(1964), which is said to be Japan's first full-fledged SF novel. Komatsu Sakyo's *Nihon Apache-zoku* depicts the civil war and division of Japan. It is a work inspired by the "Apache tribe(*Apache-zoku*)" that appeared in Osaka in the late 1950s and built a SF imagination. The "*Apache-zoku*" were a group of Zainichi Koreans who made a living by infiltrating the abandoned Osaka Artillery Arsenal and selling buried scrap iron. In the late 1950s, Zainichi Koreans could make a living selling scrap iron because of the special demand from the Korean War. In this novel, Komatsu satirizes Japanese society by portraying another "postwar Japan" imagined as an alternative future for "the ruins," and the description of *Apache-zoku* involves a number of Cold War rhetorics. However, unlike the paranoid anxiety that dominated the U.S. and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the work maintains a humorous tone throughout. This indicates that Japan was in

www.kci.go.kr

a safe zone where a sense of distance from raw violence caused by the Cold War was secured.

Key words

Sakyo Komatsu, *Apache-zoku*, SF, the Korean War, the Cold War